

# 지금 공부중입니다

## Still working on it



김희곤 | Kim, Hee-gon, KIRA  
(주)방총 건축사사무소

### 약력

- 스페인 재생건축가(스페인 국립마드리드건축대학원)
- 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
- 아버지는 매일 가출하고 싶다 (다산북스/2010) 저자
- 건축사지면찬T/F 위원

요즘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야단법석이다. 안경을 질끈 이마에 올리고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다. '지금 공부중입니다.' 다들 스티브잡스의 미술에 걸려들었다. 기존의 TV, 전화기, 인터넷을 융합했을 뿐이지만 세상은 그의 미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늙은 영혼들까지도 액정화면위로 둔탁한 손가락을 힘들게 옮기며 사이버밀랍에서 해매고 있다. CAD프로그램도 마음대로 작동하지 못해 힘들어하는데 최신버전이라며 어느 날 갑자기 BIM이란 놈이 기세를 올리며 또 기죽인다. 평면에서 입체로 그것도 모자라 정보까지 하나의 도면으로 압축하고 나타났다. 세상이 겁난다. 아내의 그림자뺨기조차 점점 버거워지는 세월은 야속하게도 너무 빨리 달아나고 있다.

박지성 선수처럼 얼굴에 피를 흘리며 부지런히 빈 공간을 찾아 빠르게 쇠도하듯이 건축사도 넓은 시장을 운동장삼아 먹이를 찾아 피를 흘리며 뛰어다녀야할 판이다. 건축주는 다양한 정보로 무장하고, 시장은 호시탐탐 건축사의 밥그릇을 노리는 무리들로 들끓고, 정부는 시장논리운용하며 전문가를 압박하는 시점에 건축사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목표를 찾아 나서고 누구와 손잡고 밀림을 헤쳐가야 하는지.

우리는 곧잘 실리콘 벨리를 마치 벤처의 신화인양 떠들고 다닌다. 실리콘 벨리는 실패의 온상이다. 성공물이라고 해봐야 겨우 30~40%수준이며 그것도 10년 뒤까지 살아남는 기업은 10%도 안 되는 숫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생산기지는 실리콘 벨리며 미국의 미래는 실리콘벨리에 있다고 한다. 실리콘벨리의 힘은 미래의 가치에 기꺼이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그 뒤를 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대륙의 발견은 한 젊은 모험가로부터 시작되었다. 콜럼부스는 4년간의 설득에도 끄떡하지 않는 스페인 이사벨여왕을 포기하고 프랑스로 보파리를 싸는 시점에 이사벨여왕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여왕이란 절충한 투자가와 콜럼부스라는 젊은 벤처가 만나 세계역사를 바꾸어놓았다.

2010년 10월 나는 수년간의 습작을 거쳐 '아버지는 매일 가출하고 싶다.'(다산북스)를 출간하였다. 이른바 4대 일간지라는 지면에 광고가 나가고 나서 판매부수가 달라졌다. 이제 출판시장에서조차 광고의 힘을 배제할 수 없다. 팔리는 책이 아니면 냉혹한 현실에서 책을 출판하지 않는다. 이것이 시장의 힘이다.

2010년 12월 나는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에 주관하는 평생교육온라인 강의를 녹화하였다. 유정아 아나운서와 나란히 앉아 뜨거운 조명 불을 받으며 큐 사인을 받는 순간 머리에 들어있던 정보가 까맣게 지워져버렸다. 수없이 엔지를 내고서 겨우 녹화를 마쳤다. 인문학의 위기라며 스페인 문화를 일반인에게 소개하면서 굳이 강의를 서툰 건축사인 나를 불러내었다. 이유는 다양한 시각에서 인문학이 접점을 찾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된다는 것이 서울대의 설명이었다. 학문시장도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2010년 11월 나는 멕시코 칸쿤에서 벌어지는 UIA세계건축사대회에 참석하였다. 하루 종일 벌어지는 컨퍼런스는 온통 친환경, 친자연, 탄소제로 건축에 대한 새로운 모험과 연구과제였다. 건축시장도 북유럽의 몇 나라와 신흥개발국을 제외하곤 개점휴업상태라며 아우성이었다. 변화하는 시장에서 건축사의 먹이를 찾기 위한 눈물 나는 모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젊은 건축가의 벤처투자가는 누가 되어야할까. 변화하는 시장에서 융합을 이끌어내어 정부와 시장과 건축주를 설득하는 논리적인 일은 누가 해야 하는가. 작금의 건축시장분위기는 전시를 방해케 한다. 이상을 향한 돈키호테의 질주가 그리운 순간이다. 현실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힘겨운 모험을 진행하면서도 무지개 같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돈키호테의 열정이 필요한 시대다. 전시에는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앞서 서로 규합하고 용맹한 장수를 앞세워 우선 적을 넘어 서야한다. 하늘과 대지를 가르는 수평선 그 너머의 꿈과 이상을 향한 열정을 융합할 수 있는 돈키호테의 질주를 기다리고 있다. 전리품은 그 다음이야기다.